

본문 : 마태복음 3 장 13-17 절

제목 : 입장의 동일함

1.

지난 주 로체스터에 봄이 온 것처럼 날이 포근했습니다. 지난 주 lectionary 말씀 중 시 147 편 17-18 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더군요. “빵 부스러기같이 우박을 쏟으시는데, 누가 감히 그 추위 앞에 버티어 설 수 있겠느냐? 그러나 주님은 말씀을 보내셔서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시니, 얼음이 녹아서, 물이 되어 흐른다.” 얼음과 눈이 녹아 흘러내리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숨결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점점 더 포악해지면서 우리를 얼어붙게 만들고 움츠려 들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지난 주 미니애폴리스에서 37 세의 여성이 ICE 요원의 총격에 피살 당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세 아이의 엄마였고 막내가 6 살 밖에 안되는 여성이라는 소식에 가슴이 먹먹해 지더군요. 나라의 안보를 위해 서류미비 이민자들을 추방한다는 명목하에 행해지는 일인데 오히려 그걸로 말미암아 국민들의 안보가 더 위협받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이민자의 삶은 현지인들의 삶에 비해 힘듭니다. 나그네들은 항상 그 사회의 주변부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회 안전망이 헐거워진 곳에 위치해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나그네 삶을 선택한 것은 자기를 지키고 보호해 준 모든 안전망으로부터 떠났다는 의미였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라는 것이 본디 안정된 기반을 떠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도 그렇게 자신의 삶의 기반을 떠나는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본문은 성서일과의 본문 중 하나인데 주님의 공생애를 기념하는 절기인 주현절과 수세주일에 맞추어 선택된 본문으로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나아와 세례를 받는 이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2.

예수님께서 퍼블릭하게 자신을 드러내어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명을 수행하기 시작한 시기를 일컬어 공생애(Jesus' Public Ministry)라 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30 살이 되어서야 시작됩니다. 서른 살이 될 때까지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나요? 그림을 하나 보겠습니다. George de La Tour 의 <목수 성요셉 Joseph the Carpenter>라는 그림입니다. 르부르 박물관에 소장된 그림입니다. 죠르주 드 라투어는 '키아로스쿠로 Chiaroscuro'라는 그림 기법으로 널리 알려진 화가이기도 합니다.

키아로스쿠로는 빛을 뜻하는 Chiaro 와 어둠을 뜻하는 Oscuro 가 합쳐진 말입니다. 그는 빛과 어둠의 대비 또는 조화를 통해 대상에게 입체감을 불어 넣었죠. <목수 성요셉>이라는 그림에도 어둠과 빛이 대비를 이루고 있습니다. 두 등장 인물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 명은 아버지 요셉이고 그의 직업은 목수입니다. 연장을 가지고 나무를 손질하고 있는 아버지를 아들 예수는 촛불로 비추고 있습니다. 아들 예수님의 얼굴이 아빠의 얼굴보다 훨씬 빛나게 그려지고 있는 것은 아마도 이 빛의 근원이 하늘로부터 온 예수로부터 시작된 것임을 말해 주고자 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은 촛불이 꺼지지 않게 하기 위해 조심히 손으로 촛불을 막고 있습니다. 아버지 요셉은 드러나게 표현하지 않지만 아들을 신뢰의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둘 사이의 교감과 신뢰를 조르주 드 라투어는 이렇게 표현하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시작 전 이렇게 아버지로부터 목수의 일을 배웠습니다. 목수로 번역되는 Tekton 이라는 단어는 나무나 돌을 다루는 기술자 또는 장인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건축 노동자였다는 말이지요. 예수님이 살던 나사렛 주변으로 헤롯 안티파스의 거대한 도시 건설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세포라'라는 로마식의 도시를 건축하기 위해 많은 목수들과 일꾼들이 동원되었고 세포라는 나사렛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께서도 아버지를 따라 건축 현장에서 힘든 노동을 하셨음을 말해 줍니다. 마가복음 6 장 2 절을 보면 예수님이 고향 회당에서 가르치고 있는데 고향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이 어디에서 이런 모든 것을 얻었을까? 이 사람에게 있는 지혜는 어떤 것일까? 그가 어떻게 그 손으로 이런 기적들을 일으킬까?" '그 손'이라 표현하고 있죠. 예수님의 손을 상상해 봅니다. 곱디 고운 손은 아니었을 겁니다. 노동 현장에서 굳은 살이 박하고 마디는 굵어졌을 것이고 더러 흉터도 있는 거친 손이었겠죠. 고향 사람들이 그 손으로 하는 이적을 보고 놀라는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하기 전까지 이렇게 가장 힘든 노동자의 삶을 직접 경험하였고 로마식민지 지배가 가장 심한 지역인 갈릴리에서 살아가는 이들의 비애를 몸소 경험하셨습니다.

3.

마태는 예수님의 공생애를 알리기 전에 마치 서곡처럼 광야의 세례 요한을 먼저 클로즈업 합니다. 마태복음 3 장 1-2 절은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하여라. 하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했다고 전해줍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광야에 누가 있길래 광야에서 외치고 있는 것일까요? 광야란 사람들이 없는 빈들 아니겠습니까? 왜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고 있는 것인가요? 그것은 광야로 사람들이 몰려들었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그냥 허공에 외친 것이 아니라 광야로 몰려든 사람들을 향해 외친 겁니다. 그의 메시지는 예수님께서 외치셨던 “회개하라 하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메시지와 꼭 같은 것이었죠. 같은 메시지를 외친 것을 통해 세례 요한이 예수님 사역과 연결된 동일 선상에 있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광야로 몰려든 것일까요? 그것은 성전 종교가 그들에게 만족을 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들 그리고 서기관 율법 교사들로 유지 되어 온 성전 종교는 사람들에게 참 만족을 주지 못했습니다. 기존 종교 질서에서 은혜를 받지 못한 갈급한 사람들이 광야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몰려 든 겁니다.

지난 주에도 광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지만 광야는 도시와는 반대되는 외진 곳이고 척박하고도 거친 곳입니다. 광야에서 사회적 지위란 아무 소용이 없어집니다. 살기 위한 조치들만 필요한 곳이지요. 외로운 곳이고 고독한 곳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광야는 학교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광야는 내 인생에서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하는 곳입니다. 아무도 내 고통을 대신해 줄 수 없는 나만의 뜻의 외로움과 고통이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광야는 장소적인 의미보다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마음의 상태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날로 치면 그런 외로움과 나만의 고통을 짊어 지고 가는 인생들을 향해 세례 요한은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하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요단강으로 나아와 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4.

그런데 세례를 받기 위해 줄을 선 사람들 사이에 한 명이 눈에 띕니다. 그 사람은 그곳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었죠. 그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죄가 없는 그분이 왜 죄인들의 틈에 끼어 굳이 세례를 받고자 하는 것인가요? 그 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자 하신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세례가 무엇인지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겠죠. 세례라고 번역된 말들은 모두 침례가 옳은 번역입니다. 완전히 물에 잠겼다 나오는 예식이 침례입니다. 세례 요한 당시 침례는 유대인들에게는 필요 없는 예식이었습니다. 왜냐면 침례는 이방인들이 유대 종교로 개종하기 위한 예식이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국 사람인데 유대교를 믿고 싶고 유대인이 되고자 하면 반드시 침례 예식을 통과했어야 합니다. 두번째 침례는

죄를 씻어 정결하게 하는 예식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처럼 광야에 모여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자 했던 옛세네파 사람들은 매일 이렇게 물로 씻는 침례 행위를 통해 자기를 정결케 하였습니다. 저도 중국 서북부의 무슬림 지역에서 살아 본 경험이 있는데 무슬림들도 이렇게 물로 씻어내는 예식이 있습니다. 회족(Hui People)들의 모스크에는 출입구 쪽에 물로 자신의 몸을 씻는 공간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손과 발과 중요한 부위를 반드시 물로 씻고 모스크에 들어갑니다. 당시 요한과 옛세네파 사람들은 에스겔서 36 장 25 절 말씀을 통해 정결예식을 행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맑은 물을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며, 너희의 온갖 더러움과 너희가 우상들을 섬긴 모든 더러움을 깨끗하게 씻어 주며,” 세례는 한 마디로 회개를 뜻합니다. 내가 참 회개합니다라는 표가 바로 세례입니다. 세례를 받고자 하면서도 회개하지 않거나, 회개하지 않았는데도 세례를 받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세례라는 것은 근본적인 마음 안에 과거를 다 청산하고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겠다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이런 세례는 예수님 같이 거룩하신 분에게는 필요 없는 예식입니다. 그런데도 굳이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시겠다고 줄을 서 계신 겁니다. 세례 요한도 부담스러웠던 것인지 예수님을 만류합니다. 예수님이 만류하는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하여, 우리가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옳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의를 이룬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말이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관심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순종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5.

이처럼 예수님은 공생애를 세례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매년 1 월 6 일이 되면 예수님께서 공공연하게 자신을 드러내 보이신 것을 기념하여 주현절이라는 절기로 기념합니다. 주님께서 자신을 나타나 보이셨다는 뜻이 주현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공적인 무대를 시작하실 때 세례가 그 첫 통과의례였다는 것에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계십니다. 죄인이 자신의 과거의 삶을 청산하고 새 삶을 살겠다고 작정하고 표현하는 예식이 세례인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겠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요? 예수님께서 죄인의 자리에 서시겠다는 의지가 바로 예수님의 세례입니다. 삼년 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 제자들끼리 누가 더 큰 지 다툴 때 예수님의 그들에게 뭐라하시나요?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고,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막 10:38)”라고

물으시죠. 결국 예수님의 세례는 십자가였던 겁니다. 십자가는 죄인 져야 하는 사형형틀인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달리실 것이고 그것이 예수님의 세례라는 겁니다. 십자가를 통해 다른 이의 죄를 짊어 지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임을 예수님은 아셨기에 자신의 공생애 맨 첫 행보를 세례로 정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이전 30년의 삶도 그냥 허투로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인간들의 가장 낮고 비참한 자리로 스스로 찾아 가셨습니다. 사람들의 입장에 서 보신 것이죠. 매일 노동의 현장에서 육체노동을 통해 사회의 맨 밑바닥에 놓인 인생들의 한숨에 깊이 공감하셨지요.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도 인간들의 죄를 스스로 짊어 지게 될 자신의 삶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것이 세례였습니다. 인간의 입장에 서 보시겠다고 만 천하에 알리신 것이 세례였던 것입니다.

신영복 선생님의 <처음처럼>에 “입장의 동일함”이라는 글이 있습니다(신영복, 처음처럼, 돌베개 233쪽).

“머리 좋은 것이 마음 좋은 것만 못하고,

마음 좋은 것이 손 좋은 것만 못하고

손 좋은 것이 발 좋은 것만 못합니다.

관찰보다는 애정이, 애정보다는 실천이,

실천보다는 입장이 더욱 중요합니다.

입장의 동일함, 그것은 관계의 최고 형태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된 인간의 입장에 서시는 것이 세례라면, 세례는 예수님이

표현하시고자 한 관계의 최고 형태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짊어지고 갈 죄의 짐이

얼마나 무거운 지 아시기에 그 죄짐을 대신 짊어 주시기 위해 우리 입장에 서 주신

것입니다.

6.

그런 예수님을 향해 하늘이 열리면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 위에 내립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좋아한다.”

하나님과 성령님이 성자 예수님의 그 행위에 대해 공감해 주고 지지해 주는

장면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인간의 입장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실

예수님의 앞으로의 사역을 함께 축하해 주는 장면이 인상적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세례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죠. 하늘로부터 들려 온 하나님의 음성은

단순히 예수님을 격려하는 의미 이상이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너를 좋아한다”는 말은 예수님의 소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어야 한다는 부르심이었던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아들이요 딸로 부르신 것은 그 특권을 누리라고만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도록 살아야 한다는 소명인 것이지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 말은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부르심이 우리에게 있다는 말입니다. 어떤 이를 볼 때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안경에 뭐가 끼거나 창문에 먼지가 끼면 잘 보이지 않죠.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불투명하다는 말입니다. 죄가 끼어 있을 때 우리 삶은 불투명해집니다.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죄는 내 안으로 굽어진 마음이라고 수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자기를 중심에 놓고 싶어하는 마음이 죄입니다. 나를 맑게 닦아 내어야 하나님이 나를 통해 드러나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드러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예수님처럼 남의 입장에 서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서양 속담에 “Put yourself in someone else's shoes”라는 말이 있죠. 다른 사람의 신발을 신어 보는 것입니다. 냄새나고 내 발에 맞지 않지만 그 사람의 신발을 신고 그 사람의 입장에 서보는 것입니다. 공감하며 반응하는 마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타자의 아픔에 공감하고 그 사람의 자리에서 주는 사람은 아름답습니다. 입장의 동일함이 있을 때 상대방은 나를 통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공생애의 시작인 세례 장면은 그분을 따르는 우리의 소명을 일깨워 줍니다. 우리 모두 우리 주변의 사람들의 입장에 공감하며 나를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시도록 행하고 실천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